

투데이 칼럼

북한 코로나 상황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인정

지난 5월 12일로부터 한 달이 넘었다. 확진자는 감소세에 있고, 사망률도 떨어지고 완치율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공식 통계다.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북한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역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내놓는 통계치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치를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북한 주민들이 전하는 최근 상황에 촉각이 곤두선다.

북한이 코로나19 발생을 공식 발표하고 한 달이 된 지난 6월 12일, 국가 비상방역사령부의 코로나19 상황 보고가 있었다.

특히 이날엔 지난 1개월간의 코로나19 전과 상황도 별도로 분석, 발표했다.

99%에 가까운 완치율과 89% 이상의 감염자 감소세에 치명률은 0.002%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정복규 논설위원

정은 위원장이 밝힌 코로나19 대동란을 한 달 만에 극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북한의 코로나 관련 방역 통계 수치는 믿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확한 추적 시스템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염자 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숫자보다도 많게는 무려 5배 정도 많다.

북한의 코로나19 현실은 탈북민들을 통해 부분적이거나 상황을 들여볼 수 있다.

해열제 같은 기본적인 약품도 부족하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말 중국 대북 소식통들이 평양 봉쇄 부분 해제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선 강력한 격리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선 강력한 격리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보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다.

회복을 위해 식품이라도 사러 나가고 싶지만 단속 때문에 그마저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완치자들을 등장시켜 북한식 치료와 관리 우수성을 선전하고 있는 관영 매체의 보도와는 상반된 내용이 많다.

북한 주민들이 설명하는 증상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단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린이들이라는 분석이다.

턱없이 부족한 의약품 탓에 민간요법에 매달리고 있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약품 제조와 투약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약물 부작용과 그에 따른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약물 치료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밝힌 자료를 봐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은 이례적으로 높다.

지난 5월 16일 북한 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가운데 10살 미만 어린이가 무려 16%를 차지한다.

같은 시기 남한과 비교하면 170배 이상 높은 수치다. 북한 그 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유엔아동기금이 발표한 세계 아동 현황에 따르면 5살 미만의 북한 어린이 가운데 한 명이 발육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학교 교사 출신의 어느 탈북민은 노력 동안에 내몰리는 아이들의 실상을 전했다.

최대 비상 방역 체계 전환 사흘째인 지난 5월 15일, 북한은 어린이 유제품 보급 상황을 전격 보도했다.

코로나 19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들을 챙기는 김 위원장의 애민정신을 더욱 부각한 것이다.

지금도 북한은 코로나19 호전 상황을 전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나 예방 없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을 인정하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전하는 상황은 여전히 딱딱하지만 하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가 저 외면하는 동안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설

원광대 평화연구소 통일강좌

원광대학교 평화연구소가 통일부 주관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생 통일 강좌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2학기 사업은 세계사와 동아시아, 기후 위기, 국제분쟁, 디아스포라, 젠더, 세계 시민의식, DMZ 공간화 등 한반도의 특수한 정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광대 평화연구소장은 "지역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세계적인 평화연구소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연구소는 지난 3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평사 초청 통일 대담'을 실시했다. 올 하반기로 열린 통일 대담의 주제는 '분단과 전쟁에서 통일과 평화로'였다.

이날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학생을 위한 통일강좌' 지원 사업의 일환이었다.

'제1부 분단과 전쟁'에서는 한반도 분단 사회를 이해하고, 상처와 갈등 구조가 어떻게 재생

산되며 분단 사회에서의 비평화적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통일 대담 구성은 역사, 사회, 정치, 교육, 통일인론, 북한학, 평화학 등 인문사회 분야 학습이 진행됐다. 분단과 통일 관련 현장 학습 주안도 마련했다. 체험형 통일교육으로 진행된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의미를 함께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다는 평이다.

이 같은 통일강좌는 '평화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원광대 평화연구소는 21세기 지구적 차원에 부합하는 평화 관련 쟁점들에 관해서 보편적 상상력을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유연한 사고력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과 인류의 평화 문제를 인식함과 동시에 세계 시민의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2023년 4월 전주를 재선거에 벌써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여부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비례대표인 정운천 의원의 지역구 도전에 대해 '단약 비례대표' 직을 던지면서까지 전주를 선거에서 당의 서진정책에 기여할 의도가 있다면 환영할만한 행보라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전주를 재선거 출마를 사실상 확인했다. 정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전주를에서 출마해 4만982표(37.5%)를 얻었다.

민주당 최형재 후보(4만871표, 37.4%)를 111표차로 제치고 32년 만에 전주에서 보수정당 후보로 당선됐다.

정 의원은 이어 2020년 총선에서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재선 고지에 올랐다. 한편 새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고 있다. 일당 독주로 이어온 민주당의 지지까지 낮아지면서 재선거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의 후보 공천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특례조항(제96조)에는 '부정부패 사전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5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당선 무효가 됐다.

단약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하면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운천 의원이 당선되면 호남 지역 교두보 마련이 되는 셈이다. 이는 2024년 총선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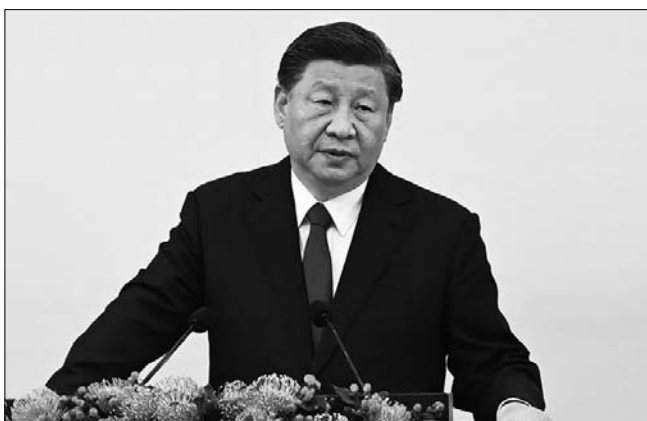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도로에 앉은 낙태 권리 지지 시위대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미 사우스다코타주 수플러스에서 낙태 권리 지지자들이 낙태 합법화 요구의 상징인 옷걸이 등을 들고 미연방대법원의 낙태 권리 폐지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진핑 "일국양제, 바꿀 이유 없어 반드시 고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반환 25주년인 1일 홍콩에서 준 리 신임 행정장관의 취임식(홍콩 특별행정구 제6기 정부 출범)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홍콩 특별행정 정부와 사회 각계의 공동 노력 아래, '일국양제'는 홍콩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을 거두었다"라며 "일국양제와 같은 좋은 제도는 바꿀 이유가 없어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